

## ■ S-93 ■

## 2개월 영아에서 발생한 식도식도문합술 후 문합부 협착에 대한 내시경적 풍선 확장술에 대한 증례

인제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우재곤, 신봉철, 김형준, 주희린, 서은희, 허내운, 박종하, 김태오

기관식도누공 동반 유무와 관계 없이 식도 폐쇄는 가장 흔한 선천성 식도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식도 폐쇄의 치료로 식도 절제술과 문합술이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식도 절제술과 문합술로 자체로 인한 치명율은 매우 낮은 편이나 수술 후 발생하는 문합부 협착은 18%~50%에서 보고 되고 있다. 수술 후 발생하는 문합부 협착에 대한 치료로는 전통적으로 내시경 또는 X선 투시를 이용한 부유지 확장법이 행해져 왔으나 비교적 높은 식도 천공률 (8~9%)과 잦은 시술 횟수 등이 보고 됨에 따라 풍선확장술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도에 대한 풍선확장술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안정성과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대부분의 풍선확장술은 X-선 유도하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 내시경하 풍선확장술은 국내외에서 치료 증례가 많지 않고 특히 생후 2개월 된 영아에서의 치료 증례는 매우 드문 상태이다. 이에 저자들은 선천성 근위부 식도 폐쇄 및 원위부 기관지식도루공이 있는 생후 2개월 된 영아에서 식도식도문합술 및 기관지식도누공결찰술 후 발생한 식도문합부 협착을 내시경 유도하 풍선확장술로 치료하여 경험을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 ■ S-94 ■

## 식도의 작은 점막하 종양 양상으로 발생한 원발성 MALT 림프종 1예

순천향의대 부속병원

\*장희운, 전성란, 조원영, 이태희, 김현건, 정승원, 장재영, 조영덕, 김진오, 조주영, 김부성, 이준성

**서론:** 위장관계는 비호지킨 림프종에서 가장 흔히 침범되는 결절 외 장소이다. 점막 연관 림프조직(mucosa-associated lymphoid tissue; MALT)에서 기원하는 MALT 림프종의 개념은 1983년 Isaacson과 Wright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원발성 위장관계의 MALT 림프종에 관한 많은 보고가 있었고 특히 원발성 위 MALT 림프종이 주로 보고되었다. 위장관계의 MALT 림프종은 위에서 65~75% 정도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다음으로 소장, 직장, 대장전반의 순으로 발생한다. 식도의 MALT 림프종은 매우 드문 것으로 전체 림프종에서 1% 미만을 차지할 정도이다. 저자들은 위내시경에서 발견된 점막하 종양양의 작은 식도 MALT 림프종 1예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식도의 작은 점막하 종양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증례:** 49세 남자환자 위내시경 시행, 치아에서부터 24 cm 위치의 상부 식도에서 작은 부드러운 용기 병변이 관찰되어 식도 점막하종양으로 판단되었고, 20MHz 미니프루브를 이용한 내시경초음파를 시행, 5.3 mm의 작고 둥그란 저에코의 종괴가 점막하층에서 관찰되었고, 종양의 내부는 다발성 저에코의 둥근 결절들이 관찰되었다. 식도 점막하종양에 대해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조직병리검사 결과 급성, 만성 비특이적 염증과 함께 반응성 증식으로 의심되는 점막하 림프절 소견을 보였으며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CD3(-), CD20(+), bcl-2(+), CD5(-), CD10(-), cyclin D1(-)로 확인되었고 악성 림프종, MALT type, 저위도(low grade), B 세포 기원으로 진단하였다. 흉부와 복부 CT, PET CT 에서 식도부위에 주요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1개월 후 환자는 내원 3일 전부터 열, 오한이 발생, 1일 전부터 왼쪽 목의 부종을 주소로 입원하였으며 40도 이상의 고열이있었고 CRP 가 15.44로 증가되었으며 RUA에서 WBC 가 10-29/HPF로 확인되었다. 목 CT를 시행, 왼쪽 턱밑샘의 염증과 봉와직염, 반응성 림프절 비대로 확인되었고 왼쪽 쇄골위 림프절의 반응성 비대가 관찰되었다. 골수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골수침범 소견은 없었다. 턱밑샘염증으로 항생제 치료 후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2개월 후 위내시경을 재시행하였고 식도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시행하였던 곳에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 조직검사 결과 편평상피세포로 이루어진 점막으로 확인되었다. 위내시경 검사에서 CLO (+) 확인되어 제균요법 시행 후 6개월 후 위내시경 검사에서 CLO (-)로 확인되었고, CT 상에도 특별한 이상소견 없어 경과관찰 중이다.